함께 푸는 미스터리 <1> 해답

919호실의 살인사건

한참뒤 최율교수는 심문실에 모인 일단의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었다. 그 방에는 김총경과 강력계형사들 그리고 4명의 혐의자들이 있었다.

「강심씨, 당신은 누이가 전화한 뒤 누이집을 찾아가서 살해했던 것이오. 그리고 심정자씨가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호텔로 가져간 것이오」 최교수의 말에 심정자씨는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사실을 고백했다.

『이제부터 강영자씨가 어떻게 살해되었는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전에 갖고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강영자씨가 하오 8시에 짐을 가지고 호텔에 도착하여 919호방을 배정받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는 가장 그럴 듯한 혐의자인 강심씨와 이종서씨 두분 모두가 알리바이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이 호텔방에 들어와서 강영자씨를 창밖으로 떠밀어내어 죽게 만들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해답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보다 일찍 살해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의 단서는 옷장속의 옷들인데 나는 이미 알아차렸지만 강심씨가 나에게 암시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방에 있는 옷들은 가방들을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강영자씨는 다른 곳에서 살해되어 트렁크에 넣어 호텔로 가져온 뒤 창밖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강영자씨가 투숙하지 않았다면 누가 투숙했을까요? 최교수는 강심씨를 쳐다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말을 이었다.

『강선생께서는 방에 옷가지가 얼마 없다고 나에게 지적하셨을 때 내가 단서를 잡기를 바랐을지 모릅니다만 아무튼 그때부터 강영자씨가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살해된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을 해도 몸을 창밖으로 던진 시간보다 일찍 살해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망시간을 확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교수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이종서씨는 이보다 이른 시간에 대한 알리바이는 갖고 있지 않아 우리는 그가 집에서 부인을 살해하고 트렁크에 넣은 뒤 여성친구인 허영희에게 빨간 가발을 씌워 호텔에 투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강심씨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던가요?』

강심씨는 아무 말도 없었으나 최교수는 말을 이었다.

『강심씨! 문제는 내가 경찰에게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이종서씨댁만 아니라 선생댁에서 가발을 찾게한 사실을 선생께서는 알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때 형사 한사람이 문쪽으로 가서 붉은 가발을 갖고 돌아오면서 강심씨의 처 심정자씨의 머리위에 올려놓았다. 다른 형사 한명이 사건당시 숙직이었던 호텔종업원을 데려왔다. 이 직원은 심정자씨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어제밤 바로 강영자씨의 이름으로 투숙한 분이예요』라고 말했다.

최교수는 한숨을 내쉬면서 강심씨를 쳐다보고 말했다. 『강심씨, 당신은 누이가 전화한 뒤 누이집을 찾아가서 살해했던 것이오. 그리고 심정자씨가 시체를 트렁크에 넣어 호텔로 가져간 것이오.』

이때 심정자씨는 와락 울음을 터트리고 최교수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고 고백했다.